

중학교용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사례 발표

김양은(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1. 중학생용 미디어교육 교과서 개발에서 고려사항

본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2007년 초등학교 대상의 미디어교육 교재 <미디어 알아보기>, <미디어 세상보기>의 후속 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본 교재의 개발과정에서는 다음의 3가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였다.

첫 번째로, 사업에서의 연계성이다. 2007년 개발된 ‘초등학생용 교과서’ 및 교사들을 위한 ‘종합자료집’과 어떻게 연계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07년 ‘초등학생용’ 교과서가 기존에 발간된 교과서들과 비교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매체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언어/스토리 중심의 구조로서 내용을 구성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고민들은 중학생용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특히,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존 교재들과의 차별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을 위한 ‘종합자료집’에 담겨진 내용을 초등학교 교재와 중학생용 교재에 순차적으로 담아내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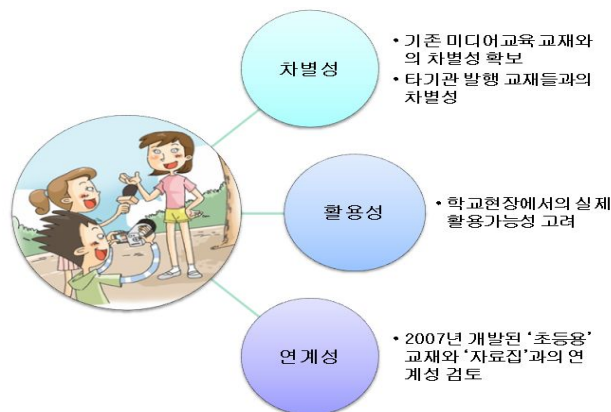


그림 1 중학생용 미디어교육 교과서 개발의 고려사항

두 번째로, 기존 교재와의 차별성이다. 중학생용 미디어교육 교과서를 개발하고, 포맷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기존에 발간된 교재들과의 차별성에 대한 부문이었다. 사실 미디어교육은 성찰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활동 방식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초등교재의 개발과정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지만, 활동위주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꼭 알려줘야 할 내용에 대한 ‘미디어 지식과 경험’을 알려주는 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놀이교육을 지향하는 초등학생과는 대상의 차별화를 감안해서, ‘지식’중심의 교과서 포맷을 도입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학교에서의 활용성부문이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미디어교육 교과서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과, 정보통신윤리, 국어과 등의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이들 교재의 대다수는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제로 향후

‘선택과목’으로 미디어교육이 고려될때, 실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미디어의 전반’을 다루는 읽을거리를 담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코자 하였다.

2. 교재의 내용구성

중학생용 미디어교육 교재의 개발은 2007년에 고려된 부문과 일치하는 요소들이 매우 많다. 무엇보다 초기 기획에서 내용과 포맷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것은 기존사업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이다. 앞서 설명했지만, 연계성은 교재개발의 방향을 의미하며, 차별성은 대상과 포맷의 차별성이기도 하다. 이런 고민들속에서 본 교재는 기존 ‘초등학생용 교재’에서부터 이어져온 몇 가지 고민들을 역시 ‘중학생용’ 교재에서도 녹여내고자 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미디어를 경험하도록 하여야한다. 특정 미디어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한다. 두 번째로, 실제로 어린이들이 경험하고, 즐겨하는 미디어를 교재에 담도록 한다. 세 번째로, 중학생의 대상적 특성을 고려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학생용 미디어교육 교과서’는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해서 기획되었다.

- 1) 주제와 매체를 결합시켜서 목차를 구성기로 함.
- 2) 읽을거리의 구성에서 매체별/주제별 내용을 선정토록 함.
- 3) 학습활동과 사례연구를 통해서 수업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질문거리를 제공함.

이런 고려에서 기획된 중학생용 교재의 제목은 ‘미디어가 보는 세상, 미디어로 보는 세상’이다. 이 제목에서도 이미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향이 드러난다. 2007년 개발된 초등학생용 교재의 목표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시킨다’, ‘좋은 미디어를 경험하도록 한다’ 등에 두고 있는데 반해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세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미디어의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라는 보다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관점으로 시각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런 고민속에서 2007년에 개발된 ‘미디어교육 종합자료집’의 구성틀과 ‘초등학생용 교재’의 내용구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8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기획하였다.

중학생용 미디어교육 교재에서 고려된 8가지 차원은 각기 ‘언어’, ‘표상’, ‘소통’, ‘경제’, ‘미디어’, ‘문화’, ‘이용자’, ‘법과 제도’, ‘생산’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8가지 차원을 통해서 ‘미디어가 경제, 문화 등에 미치는 힘’, ‘미디어가 세상을 구성하는 힘’, ‘소통의 도구로서의 미디어생산’ 등의 내용을 다루고자했다.

이 교재의 내용 구성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이 교재는 미디어의 ‘언어’와 ‘문화’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미디어언어의 ‘표상 체계’에 대한 이해 즉, 미디어가 세상을 표상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하였다. 덧붙여, ‘문화’를 개별대단원으로 분리하여, 미디어문화를 향유할 때 생각해야할 점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현상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하여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두 번째로, 미디어 경제를 다루는 부문에서 ‘미디어의 상업성’에 치중하지 않고, 전체 산업적 맥락에서 미디어를 다루고자했다. 짧은 분량으로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왔던 기존 교재들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미디어의 상업성’은 많이 다루어져왔다. 하지만, 미래 미디어환경에서 ‘미디어산업’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세 번째로, 미디어제작에 관한 부문이다. 기존 교재들은 미디어제작에 집중하거나, 혹은 미디어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교재에서는 미디어제작과 미디어분석을 다 고려하

면서, 기존 미디어제작에 관련된 기술적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제작’과정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해야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했다.

네 번째로, 법과 제도의 고려이다. 점차 일반 미디어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역은 ‘저작권’, ‘ 명예훼손’ 등의 법적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같은 미디어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학생 수준에서 개념적으로라도 알아야할 법과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자했다.

3. 교재의 구성

중학생 대상의 미디어교육 교재인 <미디어가 보는 세상, 미디어로 보는 세상>을 기획함에 앞서, 국내 및 외국의 문헌들에 대한 리뷰를 거쳤다. 이 과정은 이미 초등교재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사항이기도 하다. 초등학생용 교재의 개발에서도 자문위원들에 의해서 제시된 내용 중의 하나는 ‘활동’이 아닌 ‘미디어지식과 경험’을 알려주는 교재의 개발이었다. 본 교재의 연구진들은 외국의 최근 교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교재와의 차별점을 ‘읽을거리’와 ‘사례연구’에서 찾고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 교재는 <그림 3>과 같은 3가지 구조로 구성된다. 총 이 교재는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경험, 미디어의 종류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덟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원은 ‘단원 도입 → 소단원 1 → 사례연구 1 → 소단원 2 → 사례연구 2’로 구성하였다. 단원 도입에서는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소개하고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각 소단원은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상세화한 소단원 학습 목표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주요 지식을 익히고, 관련된 학습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스스로 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보다 심화된 학습을 위한 사례 연구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① 단원도입

단원 도입은 2페이지로 구성되는데, 왼쪽 면에는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을 제시하였고, 오른쪽 면에는 대단원의 제목과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학습목표는 각 대단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어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각 대단원에는 각기 수업을 열어가는 활동으로 활용가능한 ‘삽화’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단원도입을 통해서, 각 대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글과 그림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② 소단원

각 소단원에는 소단원의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읽을거리가 제시되어 있다. 각 소단원의 구성은 주로 ‘미디어의 지식과 경험’을 설명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발문의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소단원별로 제시되는 학습목표는 소단원 내에 제시될 3-4개의 읽을거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얻어야할 학습목표를 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소단원에 구성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표 1 대단원별 소단원 목차

구분	대단원	소단원
1	우리는 미디어 숲에서 산다	미디어와 나의 삶
		미디어의 여러얼굴
2	산업의 눈으로 미디어를 보다	산업으로서의 미디어
		미디어산업의 상업성
3	미디어, 세상을 그린다.	미디어는 어떻게 말을 할까?
		미디어가 그린 세상
4	뉴스, 세상을 편집하다.	사건과 뉴스
		보이는뉴스 가려진현실
		참여와 반응의 혁명-인터넷저널리즘
5	미디어, 문화로 즐기다	마음껏 누리는 미디어문화
		만드는 즐거움에 들쭉이는 미디어 문화
6	미디어 광장에서 나를 찾다	나와 너, 그리고 미디어
		이젠 우리가 소리쳐 봐

단원별로 나뉘어진 각 소단원의 읽을거리가 제시된 후에는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 제시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각 소단원이 학습 활동을 하는 동안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적어보면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③ 사례 연구

각 소단원 뒤에는 소단원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사례 연구가 제시되어 있다. 각 소단원에서 읽을거리와 학습 활동을 통해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관련 사례에 대해 보다 심화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례 연구의 목적이다. 소단원별 읽을거리와 학습 활동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례연구’를 구성하고자했다.

4. 지침서 구성

교재의 활용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제시될 지침서는 크게 <그림 8>에서 제시된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 대단원 소개이다. 대단원 소개를 통해서 ‘대단원의 학습목표와 내용에 관한 소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단원 소개에 제시된 ‘도입삽화의 의미와 활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 소단원 소개이다. 소단원 소개에서는 전체 단원의 흐름도를 먼저 소개하고, 이 흐름에 맞추어, 본문의 읽을거리가 구성된 방식을 소개하는 ‘본문의 흐름’이 있다. 또한 ‘소단원의 학습목표’를 설명하는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읽을거리 뒤에 배치된 ‘학습활

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다.

세 번째로, 지침서에서는 교과서의 분량 때문에 담지 못한 교사들을 위한 참고문헌과 참고자료들이 삽입되어있다. 이 내용은 ‘미디어교육 종합자료집’도 포함되어있지만, 이 외에 실제로 각 단원별로 꼭 알아야할 개념, 사례 등을 첨가시키고자 했다.